



교회와 국가: 칼빈과 십즈를 중심으로

장 성 진

◆ 초록

이 글에서는 칼빈과 십즈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한 인물에 집중된 영국 정치 상황에서 십즈는 말씀 선포와 성례집행을 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한편 권징의 시행을 영국 국왕에게 맡김으로써 교회내의 권징이 국가의 도덕법 유지와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십즈는 국왕이 교회 내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권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칼빈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한 인물이나 기관에 있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하기에 그는 교회내의 권징이 국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교회내의 다툼이나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속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칼빈이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어 임의로 세운 기관이 아니다. 도리어 국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집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듯 국가를 대해야 한다.

주제어 : 칼빈, 교회, 국가, 리차드 십즈, 권징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던 리차드 십즈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영국성공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왕이 교회의 수장을 맡아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로마 교황을 대체 한 것뿐이었다. 루터파는 교회의 치리와 국가의 통치를 엄격하게 분리시켰으며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은 교회의 치리가 국가의 통치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점에서 영국성공회에 속해있던 십즈는 루터파나 칼빈파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십즈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십즈의 견해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며 칼빈의 견해와 대조시키고자 한다.

2. 교회와 국가

이 장에서는 리차드 십즈가 영국 성공회라는 맥락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회가 국가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교회와 국가의 차이: 십즈의 견해

십즈는 교회와 국가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교회와 국가가 동일한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 그 왕은 하나님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군주이다. 십즈는 그 왕이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즈는 그리스도가 왕일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신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이 그 분의 신부인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는 뜻이다. 십즈가 “세상의 신인 사탄은 하나님의 노예이며 그분의 교회의

노예이다”¹⁾라고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탄은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십즈에 따르면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는 종일뿐이다. 사탄의 활동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교회의 유익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십즈가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 가운데서 성취하실 것이다”²⁾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십즈에 따르면 하나님은 교회 뿐 아니라 국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시기 때문에, 십즈는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일도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 포함시킨다. 그는 구약에서 요시아 왕이 국가를 다스릴 뿐 아니라 종교도 돌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가 보기에 영연방(영국과 연맹을 맺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영국 왕은 요시아 왕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십즈는 왕이 교회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데 필요한 한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바로 잡는 일은 왕의 몫이다. 그러나 성례나 성직자 임명, 설교와 같은 교회의 고유 업무는 왕의 몫이 아니다. 십즈는 참된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적법한 시행 중에서 앞의 두 가지가 교회의 고유 업무인 반면에 권징의 적법한 시행은 국가 권력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³⁾

십즈는 교회의 권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인 왕을 사용하시지만 교회 내에서 권징의 집행방식은 국가 내에서 권력의 집행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왕은 영국 국왕이 아니라

1) Richard Sibbes, “The Saunt’s Safety in Evil Time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301.

2) Richard Sibbes, “The Saunt’s Safety in Evil Times,” 301.

3) Richard Sibbes, “Josiah’s Reformation,”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88.

온유한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세속 법은 엄격하고 사람들에게 처벌의 고통을 주지만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범법자를 처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그를 가르쳐 바로 잡는 데에 있다. 십즈는 법의 최상의 집행 방식이 국가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집행방식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속 법의 집행 방식이 교회법의 집행 방식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십즈에 따르면 세속의 법정은 온유한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치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더 적합하게 온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십즈는 성막에서 촛불을 끄는 기구가 순금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 교회의 치리가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권면을 하면서도 그들이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한 까닭은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교인들의 영적 회복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하기에 십즈는 교회법에서 인간의 권위 대신에 하나님의 권위만이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온유하신 왕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권징방식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⁴⁾ 십즈는 교회의 공적 권징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권면까지도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2) 교회와 국가의 차이: 칼빈의 견해

이에 반해 칼빈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영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통치를 외적 도덕성의 확립과 시민생활의 정의의 유지만을 목표로 삼는 국가의 통치와 구별한다. 칼빈에 따르면 사람은 교회의 영적 통치와 국가의 외적 통치라는 이중적 통치 아래에 있다. 교회의 통치는 사람의 영혼과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며 영생을 목표로 삼는다. 국가의 통치는 미래의 영원한 삶과는 무관하며 그저 이 땅의 삶과만 관련을 맺는다. 그러하기에 칼빈은

4) Richard Sibbes, "The Bruised Reed and Smoking Flax,"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55.

5) Richard Sibbes, "The Bruised Reed and Smoking Flax," 55.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의 제도에서만 찾는 유대인의 신정 국가적 생각을 비판한다. 그러한 생각은 교회의 영적 통치와 국가의 외적통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하기에 칼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비록 국가 내에서 신분상 억압을 받고 있다 하여도 그의 영적 자유가 자동적으로 억압받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통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악으로 보는 동시에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도록 하려는 시도도 악으로 여긴다. 후자의 시도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국가의 외적 통치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⁶⁾

국왕이 종교의 수장이었던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십즈는 교회내의 권징을 국왕의 의무로 여겼다. 이에 비해 시민정부의 역할을 시민적 정의와 도덕의 유지로 제한한 칼빈은 교회 내의 권징을 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긴다. 이는 칼빈은 권징을 시민적 도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통치의 수단으로만 보았음을 잘 보여준다. 칼빈은 세속적 국가와 영적 국가를 엄격하게 구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십즈는 국왕이 교회의 권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칼빈의 장로교 정치와는 달리 국가주의 정치를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하기에 십즈는 세속 권력이 세상 법뿐 아니라 교회법에도 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그는 칼빈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따른다고 여겨질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만일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다면 그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통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십즈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는 참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종말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순례를 도와야하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칼빈은 국가가 교회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몇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로

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하』,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583-584.

국가는 하나님께 드러지는 외형적 예배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는 “경건의 건전한 도리와 교회의 지위를 변호”해야 한다. 셋째로 국가는 우리의 삶을 시민 사회의 정의에 맞추어 살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그 결과 국가는 인간들 사이의 화목과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는 이 땅의 교회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통치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교회의 영적 통치와 국가의 법적 통치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한다고 여긴다. 칼빈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는 세속적이어서 그리스도인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⁷⁾

칼빈은 국가의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는 음식물이나 태양, 공기와 같이 필수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것들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칼빈은 국가의 통치를 교회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국가는 “신앙을 대적하는 공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거나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며, 공공의 평화가 방해 받지 않도록 방지하며,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고도 건전하게 지키도록 하며, 흠 없이 교류하고, 그 사이에 정직과 겸손을 보존시킨다.”⁸⁾ 결국 칼빈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의 일차적 목적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다. 이는 칼빈이 행정에 직접 참여했던 제네바 시의 시민들이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 같다. 칼빈에게 시민 보호는 곧 그리스도인 보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⁹⁾ 칼빈이 국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롬13:3-4)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국가의 통치도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도 정당한 하나의 소명이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교회의 양부’로, 왕비를 ‘교회의 유모’라고 부른 사실을 언급한다(사49:23). 그에 따르면 그들은

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84-585.

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86.

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86.

1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87-588.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호칭으로 불린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포함하여 공적인 집회에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당연하다. 왕들은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를 보호하는 직무를 위임받고 수행하기 때문이다.¹¹⁾ 칼빈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통치자들이 공의와 분별과 자기 절제와 정직이라는 덕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덕은 국가 통치자들에게 교회를 보호할 권한과 의무를 맡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¹²⁾ 또한 칼빈이 사도바울이 일인 통치를 특별히 권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까닭도 일인 통치, 즉 군주제가 유일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방식을 잘 닮고 있다고 여기는데 있다.¹³⁾

칼빈은 국가 통치가 율법의 두 돌비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함으로써 국가 통치가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인간들 사이의 질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돌비에 새겨진 예배와 종교적 질서에도 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이 말은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질서가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국가 통치가 영향을 주어야 하는 세상의 질서가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칼빈이 모든 철학에서 종교가 가장 우선 한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회적 공의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이는 국가 통치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공의와 질서만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그는 그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하기에 칼빈은 국가 통치자가 일반 범죄자들뿐만

1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88-589.

1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89-590.

13) 물론 칼빈은 군주제만 절대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는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선택은 상황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제어 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돕고 가르치고 권면 할 때 국가의 통치는 더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민주정치의 근접하는 귀족 정치를 제정하는 다윗을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통치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90-593.

아니라 신성 모독자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국가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경건하고 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통치를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무력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그 심판은 경건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하며 그 결과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일을 온전하게 행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 분의 심판을 위임받은 국가 통치자들을 통해 그 일을 부분적으로 행하신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처럼 국가 통치자에게도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하기에 국가 통치자들은 어떤 일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리해서 악의 치유보다는 그 보다 더한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악한 일을 너무 부드럽게 대해서 악을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국가 통치자는 개인과 사회의 악을 제거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형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는 사랑과 정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¹⁵⁾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국가 권력자의 무력 행사는 국가 내의 범법자들만을 향하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의 바깥에서부터 부당한 공격이 그 국가를 향해 일어날 때에 국가 통치자는 국민들과 함께 무력을 사용해서 그 공격에 맞서야 한다. 이러한 무력 사용은 “공동의 평화를 깨뜨리며 횡포를 부리며 압제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격렬한 횡포를 막는 일이다.” 칼빈은 이러한 무력 사용이 성령께서 정당하다고 선언하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까지 말한다.¹⁶⁾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던 성령이 전쟁을 인정하신다고 칼빈이 말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전쟁의 목적이 평화에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여기서도 국가 통치자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칼빈은 올바른 무력사용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93-594.

1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95-598.

1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98.

국가 통치자들이 지나친 분노나 증오심, 가혹함에 휘둘러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칼빈에 따르면 국가 통치자들은 백성의 유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받아들인다. 외교나 협상과 같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도 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선택되는 전쟁만이 정당하다.¹⁷⁾

국가 통치자가 사회질서 유지와 정당한 전쟁을 통해 백성의 안전을, 특히 신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경비가 필요하다. 칼빈이 공물과 세금을 국가 통치자의 적법한 수입원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도 칼빈은 균형과 중용의 미덕을 강조한다. 국가 통치자는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 심지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위해서 때로 화려한 치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를 넘어 지나친 사치와 낭비는 과도한 세금부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착취이다.¹⁸⁾

칼빈에 따르면 국가 통치자가 정당한 권위에 의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에 따라 그가 통치한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법을 “국가 체제의 가장 든든한 힘줄”이며 “국가의 영혼”이라고 묘사한다.¹⁹⁾ 칼빈은 통치자와 법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법이란 무언의 통치자요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이다”라고까지 말한다.²⁰⁾ 국가의 올바른 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인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이는 국가법의 정당성이 그 법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칼빈에 따르면 모든 국가법들의 공통된 부분에 따라 통치 하는 경우는 모세를 통해 반포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과 같다. 이 점에서 칼빈은 현실의 국가법들이 일반계시차원에서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이는 칼빈이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적 배경을

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599-600.

1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0-601.

1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1.

2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1.

가지고 있는 데에서 유래하는 것 같다. 칼빈은 모든 국가법들의 근원이 되는 모세 율법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의 국가법들 중에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않는 법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²¹⁾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된다. 칼빈은 영구불변하는 법만이 모든 국가법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에 도덕법을 모든 국가법들의 근거로 삼는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민족국가에게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그리스도가 오심에 따라 폐기된 법이기에 모든 국가법들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모세의 시민법은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국가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법은 공평과 정의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현하는 하나의 특수 사례일 뿐이다. 모세의 의식법도 경건의 도리를 담고 있지만 경건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법은 경건의 도리를 특수 상황에 적용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경건이라는 의식법의 원리와 사랑이라는 시민법의 원리는 불변하지만 그 법들의 적용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다. 이와는 달리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하는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원한 법이다. 그 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뜻을 반영하는 자연법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법들은 이 도덕법이 각기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그 법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해도 사랑이라는 도덕법을 반영하는 한에서 동일한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지향한다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시민법 내지 국가법은 도덕법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도덕법의 원리는 국가법에서는 공정성이라는 원리로 나타난다.²²⁾

칼빈은 교회 안에서 준수되는 도덕법이 국가에서는 시민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도덕법은 영원불변하는데 반해 시민법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경우 도덕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민법을 어디까지 준수해야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칼빈에게 이 물음은 그리스도인이 국가 통치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하는가라는

2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1-602.

2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2-605.

물음으로 나타난다. 칼빈은 “통치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²³⁾라는 말을 그의 대답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는 악한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막음으로써 우리에게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일이 통치자들의 사명이라는 디모테 전서 2장 2절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국가법에 호소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 국가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소송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만일 그 동기가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악의라면 그 소송은 정당하지 못하다. 나쁜 동기가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만 있는 경우 그 소송은 정당하다. 이런 경우 고소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법관의 판결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원고나 피고는 공정성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어떤 손해도 감수할 마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계속 대할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공정성이라는 국가법은 사랑이라는 도덕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호소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송은 정당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법적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다른 극단에 빠지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 받는 자들의 손해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약속은(롬12:19) 국가법에의 호소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인 국가 통치자를 통해 고난 받는 자들의 손해를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²⁴⁾ 그러하기에 칼빈은 바울이 법적 소송을 완전히 정죄했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여긴다. 고린도전서 6장 5-8절은 그리스도인의 법정 소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칼빈은 바울의 책망이 신자들의 무절제한 분쟁 때문에 복음이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이 책망은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동료 그리스도인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2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5.

2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5-608.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법정에 호소하는 일은 정당화 된다.²⁵⁾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국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와 대리인으로 여겨 존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하기에 국가 통치자들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악에 불과하지는 않다. 이를 통해 칼빈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개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으로만 한정하려는 자유주의적 정부관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인간적 기관에 불과하지 않다. 국가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법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이 자발적이고 신실하듯이 그들이 국가통치자들에게 보여야할 존경도 자발적이고 신실해야 한다. 또한 이 존경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²⁶⁾

그러나 이 존경은 국가 통치자 개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의 직위를 향하는 것이다. 통치자들 중에는 악한 통치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직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악한 통치자들의 권위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권위는 통치자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의 직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²⁷⁾ 흥미로운 점은 국가 통치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얻게 되었는지가 그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예를 들어 군사정변으로 얻은 권력을 정당하지 못한 권력으로 보는 오늘날의 시각과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물론 그는 비록 그러한 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를 그분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여긴다. 칼빈은 그러한

2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9-610.

2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11-612.

27) 칼빈은 이러한 주장을 교회 사역자에게도 적용하는 것 같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은 그 인격에서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악한 통치자가 그의 통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은 그에게 통치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통치자를 악한 종으로 여겨 처벌하실 것이다. 동일한 논리가 교회 사역자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다. 불완전한 교회 사역자의 영적 다스림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만 잘못된 다스림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찾는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그 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그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를 처벌하시겠다고 경고한다. 그러하기에 칼빈은 잔인한 폭군에게조차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국가 통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원칙에 충실 한다.²⁸⁾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악한 정복자의 변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악한 정복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정복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안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변영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에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지 않고 그의 통치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불의한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를 통해 처벌 하셨다.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의 처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채찍인 바빌로니아를 통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로 잡고자 하셨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악한 바빌로니아의 변영을 보고 절망하기보다 바빌로니아를 사랑의 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러하기에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악한 국가통치자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눈 앞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강하게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악한 의도와 욕심을 지닌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하기에 국가 통치자들은 올바른 통치나 잘못된 통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 그러나 칼빈은 악한 통치자들의 행위를 무조건 방임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은

2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13-616.

개개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²⁹⁾ 국가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직자나 공공기관은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결국 칼빈은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을 국가권력의 분점을 통한 상호견제에서 찾는 것 같다. 일인 군주의 절대 독재를 허용하는 경우 칼빈의 입장은 기존의 잘못된 체제를 무조건 옹호하고 현실의 악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그러나 칼빈은 국가 통치자의 잘못된 한 행사를 견제 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 권력을 염두에 두으로써 그 비판을 피해 나가는 것 같다.

또한 칼빈은 국가 통치자의 권한 행사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국가 통치자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부정하는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 경우 국가 통치자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잃어버린다. 그러하기에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국가 통치자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통치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에 그 통치에 맞서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에 기대어 그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³⁰⁾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국가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겨야 한다는 점을 지금까지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문제를 국가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억울한 일을 국가 법정으로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다. 비그리스도인은 국가법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 데에 그치지만 그리스도인은 국가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선을 베풀며 그가

2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16-620.

3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20-621.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³¹⁾

3)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교회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확신

그런데 십즈에 따르면 세속 법을 따르는 세상과 교회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교회는 현재의 불완전하고 부패한 상태를 궁극적으로 극복 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십즈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승리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자 통치자이시지만 특히 교회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완전히 구현하신다. 현재의 지상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 덕분에 천상의 승리하는 교회를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³²⁾ 그러하기에 십즈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위협과 위함을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더 보아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지상의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³³⁾

전투하는 교회는 때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있다. 십즈는 우리의 영적 슬픔이 교회를 위한 슬픔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라는 말씀에서 뜻하는 눈물은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십즈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시97:11)라는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십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눈물들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병에 소중하게 담는다. 그리고 그 눈물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 안식일 위반이나 성례의 남용이나 교회가 받는 핍박이나 형제의 죄악 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눈물이다. 십즈는 이 눈물이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귀한 곡식으로 자라 추수할 때가

3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608-609.

32) Richard Sibbes, “The Bruised Reed and Smoking Flax,” 97.

33) Richard Sibbes, “The Soul’s Conflict with itself, and Victory,”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252.

오면 기쁨의 곡식 단으로 수확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십즈는 육적 통곡과 영적 통곡을 구분 한 후에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십즈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슬픔은 언제나 육체에서 시작된다. 그러하기에 기도나 금식, 여러 경건한 일을 하는 데에 우리는 통곡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에서 시작된 슬픔이 육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비록 슬픔이 육체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슬픔은 영혼에서 끝나야 한다. 십즈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슬픔을 주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슬픔을 영적 슬픔으로 바꾸어 놓는다.³⁴⁾

영적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쓴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에 진리를 전개하는데 힘써야 한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십즈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까지 말한다.³⁵⁾

십즈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하기에 일부 교인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다가 교회의 본질을 노치기도 한다. 십즈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와는 달리 교회 안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 십즈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참되게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자신만의 은밀한 운동을 하고 있는 항성(star)과 같다. 가시적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현실에서는 확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항성이 은밀한 운동을 한다고 말한다.³⁶⁾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겉으로는 완전히

34) Richard Sibbes. "Spiritual Mourning,"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 290.

35) Richard Sibbes. "The Christian's End,"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l/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298.

36) Richard Sibbes. "Exposition of Philippians III,"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 135.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신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큰 힘을 발휘하는 한 무리의 참된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³⁷⁾ 어떤 점에서 볼 때에 교회는 악한 곳에서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 교회의 사명은 참된 생명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는 데에 있다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교회관이 여기서 확인 될 수 있다.

교회의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은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들 속에 있는 악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혼동과 어두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시작된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성령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를 상속 받도록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세상에 두셔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일을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우리에게는 질서가 전혀 없었다.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말씀 선포는 새로운 창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혼돈이 질서로 넘어가고 죽음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참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이다. 교회에서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선포된 결과 교회가

37) Richard Sibbes, "Exposition of 2nd Corinthians Chapter I,"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I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London/ Dublin: James Nichol/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10.

생명으로 넘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십즈가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참된 성도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일부 타락을 내버려 두거나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고린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잘못하고 연약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기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리나 삶의 방식에서 많은 타락을 했다는데 있지 않고 그러한 연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한 것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있다. 바울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보다 선한 부분을 크게 평가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치고자 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³⁸⁾

문제가 많은 고린도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의 잘못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완성해 가실 선한 것들에 주목했다. 바울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었다. 우리도 교회를 평가할 때에 현재의 불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 죄의 영향아래 있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같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의 약점들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 십즈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다른 잘못보다 훨씬 더 큰 악이라고 여긴다고 해석한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의 잘못 때문에 한국교회가 고통 받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 안에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에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거나 그 교회를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³⁹⁾ 동질집단 안에 있을 때에 발견되지 않는 연약함이나 약점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교회 밖의 다른 모임에서보다 교회에서 잘못과 약점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평소 사회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성을

38) Richard Sibbes, "Exposition of 2nd Corinthians Chapter I," 322.

39) Richard Sibbes, "Exposition of Philippians III," 135.

통해 교회를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더 정화시켜 가신다.

그러나 이 다양성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더 부각되는 불완전성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기 쉽다. 하지만 십즈는 교회의 불안전 보다 교회의 아직 남아 있는 선한 상태에 주목하라고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를 기대하라고 요구한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할 태도는 비난과 정죄와 분리가 아니라 선한 것을 증진 시키고 연약한 것을 온유한 것으로 감싸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선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일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참된 지체가 되는 길이다.

4) 세상의 모범으로서의 교회

십즈는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도 규정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십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좁은 의미로도 해석한다. 이는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교회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다.⁴⁰⁾

십즈에 따르면 교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교회라는데 있다. 십즈는 교회를 외형적 건물로만 이해하지 않고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으로도 이해한다. 그러하기에 그는 집을 건물로뿐 아니라 가족으로도 이해한다. 십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규정할 때에 가장이 가족을 돌본다는 사실을 모델로 제시한다.⁴¹⁾

십즈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세상 보다는 교회를 더 돌보신다고

40)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374.

41)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4.

여긴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해석할 때에 잘 드러난다. 십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을 세상 앞에서 때리시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십즈에 따르면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겔9:6)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족의 성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분을 가까이 하는자들 가운데서 그 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레10:3).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차적 대상이 교회 이듯이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차적 대상도 교회가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무저갱으로 떨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⁴²⁾

십즈는 교회를 세상을 위한 선생으로도 규정한다. 복음을 지니고 있는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세상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십즈에 따르면 교회가 말만 앞세우고 삶의 순종의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세상보다는 선생인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교회를 집의 거실에, 세상을 더러운 바닥이나 주방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주방 바닥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머물러야 하는 거실에 더러운 먼지가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십즈는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더러움을 가장 못 견뎌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차적 정화 대상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데에 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선생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⁴³⁾

십즈는 성도들의 죄가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악하다고 여긴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밝은 빛인 복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했기 때문이다. 더 아는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니기 마련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로 넘치는 곳인 교회가 죄를 짓는다면 그

42)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7.

43)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7.

죄는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일은 매우 큰 죄이다. 또한 십즈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도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의 범죄는 신부의 부정으로도 여겨진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신부의 부정은 신랑에게 큰 상처가 된다. 여기서 십즈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보다 교회의 죄를 더 심각하게 받아드리시고 슬퍼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12:47-48)는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하기에 십즈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⁴⁴⁾

여기서 십즈는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그 범죄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교회내의 범죄를 세상에서의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내의 범죄를 세상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일이 그 처벌을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다. 교회 내의 범죄에 대한 교회의 처벌은 동일 범죄에 대한 세상 법정의 처벌보다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교회는 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처벌의 잣대를 비그리스도인에게 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신다. 그러하기에 십즈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분의 집에서 시작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간음과 같은 죄를 세상 법정이 엄하게 처벌하는데 반해 교회가 그러한 죄를 넘겨버리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다고 밝힌다.⁴⁵⁾

5) 교회의 고난의 의미

십즈는 영국 국왕이 교회의 권징을 수행하지만 그 권징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십즈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직접 개입하셔서

44)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7.

45)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7-378.

영국 국왕이 이루지 못한 권징을 완전히 시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심판 날 까지 하나님의 권징 시행을 이루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완전을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십즈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심판을 미루신다. 현실의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을 중단하시고 교회에 위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이다. 물론 마지막 날에서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부주의하게 되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십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시88:15)는 구절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⁴⁶⁾

물론 교회가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분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지를 보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뜻하는 흰 말을 탄 사람, 즉 그리스도가 승리한 후에 사망을 뜻하는 붉은 말을 탄자가 뒤따라 나와 평화를 없애고 서로 싸우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언급한다.(계6:2,4) 교회가 복음을 잘 유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교회의 고난은 때로 교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일 수도 있고, 때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의 인내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야곱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연단되는 시대라고 여겼다. 그래서

46)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8.

그는 당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십즈는 이 땅에서 교회가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최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고난 받는 성도와 교회에게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한다. 하늘 친구는 이 땅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하기에 십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은총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쏟아 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십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늘 친구이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7년의 대 풍년을 경험한 이집트에서 제 2인자였던 요셉이 가나안에서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로 든다.⁴⁸⁾

십즈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서도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하늘 친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십즈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에게 잘못 행하는 일은 그들의 친구 그리스도께 잘못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십즈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는가?”(행9:4)를 제시한다. 사울은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지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십즈는 여동생 다말이 겪은 악행을 압살롬이 견디지 못한 예를 통해 형제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여동생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으로

47) Richard Sibbes, “The Church’s Visitation,” 378.

48) Richard Sibbes, “Bowels Opened,”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l/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23.

보복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늘 친구의 모형으로 제시된다. 십즈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 형제애를 지니시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응징하신다. 야곱의 아들들과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 십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여동생”라고 표현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할 때에 그리스도는 이를 참지 못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다.⁴⁹⁾

십즈는 교회의 고난이 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점에서 버리신 결과로도 여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행위를 할 때에 교회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교회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 이는 교회가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교회를 버리시는 일 자체가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 하신 일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⁵⁰⁾

십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난과 수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부를 지니고 있지만 그 부는 가난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십자가의 수치와 불명예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지만 십자가에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십즈는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가난을 통해 부요함을 드러내야한다. 교회는 수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한다.⁵¹⁾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방식을 피해야 한다. 이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

49) Richard Sibbes, “Bowels Opened,” 23.

50) Richard Sibbes, “Bowels Opened,” 104.

51) Richard Sibbes, “The Church’s Riche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V, 506.

교회론을 잘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의 가난 때문에 그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⁵²⁾ 그 사람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⁵³⁾ 또한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다. 때로 이스라엘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이스라엘이 그 분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⁵⁴⁾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야하는 뜻이기도 하다.⁵⁵⁾

십즈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가난하게 보여도 내적으로는 부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의 증거를 제시한다. 그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장막이 교회의 양면을 잘 보여준다고 여긴다. 게달족들의 장막은 겉에서 볼 때 매우 조잡하고 거칠었다. 그러나 그 장막 안에는 많은 보석이 있었다. 이처럼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조잡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영광이 있다. 특히 십즈는 교회를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함으로써 교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보화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이는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⁵⁶⁾

교회가 내적으로 보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즈에 따르면 현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겪는 죄와 슬픔은 교회의 불완전한 상태를 잘 들어낸다. 그리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52) Richard Sibbes, "The Church's Riche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V, 508.

53) Richard Sibbes, "The Church's Riche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V, 511.

54) Richard Sibbes, "The Saint's Happines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I, 74.

55) Richard Sibbes, "The Saint's Happiness," 75.

56) Richard Sibbes, "The Church's Blacknes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I, 96.

불완전하다는 고백을 평생 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회심이 개인에게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⁵⁷⁾

십즈는 6권 233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안다면 위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죽는다고 교회가 죽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갖지 않으신다 해도 세계의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갖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지니실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십즈는 영국 국왕이 교회내의 권징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 결과 교회는 불완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국왕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십즈에 따르면 현재 교회의 불완전은 도리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 바라는 동기로 작용한다. 영국 국왕이 완전한 통치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다스리실 수 있다.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십즈는 교회의 권징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속 법에 따라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국가의 통치자와 종교의 수장이 동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칼빈과 십즈의 견해 차이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는 데에서 생겨났다.

3.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칼빈과 십즈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한 인물에 집중된 영국 정치 상황에서 십즈는 말씀 선포와 성례집행을 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한편 권징의 시행을 영국 국왕에게 맡김으로써 교회내의

57) Richard Sibbes, "The Church's Blackness," 96.

권징이 국가의 도덕법 유지와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물론 그는 교회내의 권징 방식이 세상 법에 따른 처벌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왕은 온유하신 왕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내의 권징방식은 처벌보다는 회개에 초점을 두며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십즈는 국왕이 교회 내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권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십즈는 그 결과 생기는 교회의 불완전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소망한다. 또한 길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불완전은 교회 내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이에 반해 칼빈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한 인물이나 기관에 있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하기에 그는 교회내의 권징이 국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교회내의 다툼이나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속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칼빈이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어 임의로 세운 기관이 아니다. 도리어 국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집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듯 국가를 대해야 한다. 특히 국가 권위자가 완전 하지 않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위의 직분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야한다. 칼빈도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통치자가 교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록 국가가 교회의 권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시민적 정의나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세속법정에서 그를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Eerdmans, 1995.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Sibbes, Richard. "The Bruised Reed and Smoking Flax,"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33-99.
- Sibbes, Richard. "The Soul's Conflict with itself, and Victory,"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119-288.
- Sibbes, Richard. "The Saunt's Safety in Evil Time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295-312.
- Sibbes, Richard. "The Church's Visitation,"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 31-383.
- Sibbes, Richard. "Bowels Opened,"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2-193.
- Sibbes, Richard. "Exposition of 2nd Corinthians Chapter I,"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I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 Sibbes, Richard. "The Church's Riche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IV,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191-525.
- Sibbes, Richard. "Exposition of Philippians III,"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55-151.
- Sibbes, Richard. "The Christian's End,"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 287-322.
- Sibbes, Richard. "Josiah's Reformation,"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 James Nichol/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27–90.
- Sibbes, Richard. “Spiritual Mourning,”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 265–292.
- Sibbes, Richard. “The Saint’s Happines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I, edited by Alexander Balloch Grosart,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l/ James Nisbet/ W. Robertson, 1862, 65–78.
- Sibbes, Richard. “The Church’s Blackness,”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 VII, 93–104.

〈Abstract〉

Church and State in John Calvin and Richard Sibbes

Sungjin Chang

(Baekseok Arts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John Calvin and Richard Sibbes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in their political situations. The King of England where Richard Sibbes lived had both political and religious powers. Sibbes as a pastor of Anglican Church tried to make sure that church has her own authority in the proclamation of the words of God and the practice of sacraments whereas he let the king have power in the church discipline. Sibbes, however, acknowledged the limitation of the practice of church discipline by the king. He understood the imperfect state of church discipline as a result of God's non-intervention in the churches in his time, for God is the mildest king of the kings who has great patience in order to wait for the repentance of the churches.

John Calvin's attitud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is different from that of Richard Sibbes in that he thought a king or an organization should not have both political and religious powers. It means that he did not accept the idea that the state has her right of church discipline. According to Calvin state is not just an human organization but a divine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for God's

work in the world.

Key Words : John Calvin, Church, State, Richard Sibbes, Church Discipline.

투고자 및 투고자 약력

장성진 :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Long Island University C.W. Post Campus (B.A.),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조직신
학 박사과정(Ph.D. candidate),

이메일 : schang@bau.ac.kr

투고일 : 2014년 1월 11일. 심사일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0일